

납품업체 “납기 어떻게 맞추라고...” 소상공인 “한 달 공치게 생겼네요”

르포 / 추석 10일 장기연휴가 고달픈 사람들

“근로자들을 쉬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납기를 제 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납기를 제 때 맞추려면 연휴가 끝난 이후 특근까지 해가며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인건비까지 적어도 200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갈텐데 어떻게 마련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난 8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공단에서 만난 대기업 납품업체 대표 정씨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벌써부터 고민이 많다고 한숨을 쉬었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쉬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은 최장 연휴의 ‘추석 황금연휴’를 반겨왔지만 지역 중소기업과 일부 자영업자들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는 “추석 연휴 중간에 쉬게 되면 나중에 주말 대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비용이 더 많이

중기 “연휴 뒤 특근 비용 적정”
 전통신장 “매상 절반이면 다행”

발생한다”며 “어쩔 수 없이 황금 연휴에도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과 전통신장 등 소상공인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도배업을 하는 자영업자 조씨는 길어도 너무 긴 휴일에 일감이 없으며 매출이 뻥뻥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조씨는 “통상 연휴 일주일 전부터 일감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번엔 유난히 길다보니 연휴를 포함해 거의 한 달을 공치는 셈”이라며 “연휴라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명절을 어떻게 쇠야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씨 역시 긴 연휴 동안 쉬지도 못하는데 매출마저 줄 것이

확실하다면 걱정을 했다.

박씨는 “쉬는 날이 많을수록 행락지 인근을 제외한 주유소 대부분의 매출이 떨어진다”며 “그렇다고 주유소를 쉬 수도 없으니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전통신장 상인들도 임시공휴일 지정과 최장 기간 휴일에 한숨만 내쉬었다. 양동시장의 한 상인은 “휴무가 길면 재래시장과 전통신장의 매출은 거의 반 토막이 난다고 보면 된다”며 “정부가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장 분위기를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명절이 대목이라고는 하지만 명절 때 장 보는 양은 정해져 있으니 연휴가 길면 길수록 매출은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승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내수 진작을 어떻게 시킬지 계획이 없다 보니 골목상권이 텅텅 비게 됐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울돌목 명량대첩 신화 재현 9월 오후 해군군과 진도군 사이 울돌목에서 열린 '2017 명량대첩 축제'에서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 13척이 왜선 133척을 상대로 승리한 명량해전의 신화가 재현되고 있다. 올해 정유년은 명량대첩이 7주갑(60 갑자가 7번 반복된 420년)을 맞는 해다. >관련기사 5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 전술핵 재배치 싸고 논란 확산

美언론 “트럼프 검토 중”
 宋국방 “북핵 억제 방안”
 “위험한 키운다” 목소리도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사실상 핵-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가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NBC 뉴스 등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거세다. 한국당 내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노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

기로 했다.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최근 확산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직결돼 있다.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들여놓음으로써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것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만큼, 핵에는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뤄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가 수반하는 위험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수 있다. 남북한이 서로 핵무기를 겨는 상황에서 극히 우발적인 사고도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면 이는 실제 배치를 위한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방부 5·18 특조위 출범...3개월간 조사 활동

위원 9명·지원단 30명...위원장 겸 평 출신 이근리 변호사
 손금주 의원 “발포명령자 규명·행불자 소재 파악 등 빠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등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11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특조위 위원장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이근리(54) 변호사가 내정됐다. <관련기사 6면>

10일 청와대와 광주시에 따르면 특조위는 모두 39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원 9명, 실무조사 지원단 30명이다. 우선 특조위원장을 맡은 이 변호사는 합평 출신으로 광주고검 차장,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등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들기도 했다. 특조위원은 광주시 추천 3명(김성·안종철·최영태)과 공군협회 추천 전직 장성 2명, 대한변협 추천 3명, 역사협회 추천 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광주시는 물론 인권위와 대한변협, 민변 등의 추천으로 실무

조사 지원단이 꾸려졌으며 전체의 절반 정도가 민간 부문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출범,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인 특조위는 합참, 육군,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보관 중인 기밀문서 해제와 5·18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인사들의 증언 등을 토대 등을 통해 80년 광주의 진실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무조사 지원단에 당시 군 복무를 했던 인사들과 군 작전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됐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특조위에 실질적인 수사권 등이 없다는 점에서 국방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별다른 성과를 내기 힘들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단 특별조사위

위원회는 5·18 관련 극비 문서들의 해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헬기 사격 의혹 등은 물론 집단 발포 명령의 진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0일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 ▲행불자 소재 파악 ▲집단 매장지 발굴 등 핵심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 규명에도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시모집 ▶ 9.11(월)~15(금)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HNT 하나투어

아직 늦지 않았다.
 조금 늦은 바캉스를 위한
무안출발 해외여행!

하나Pack 클래식 AVPF13_TWA
 전일정 5성급호텔 +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다낭 · 호이안 · 후에 5일
 총 상품가격 **8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7월 27일(목)~10월 29일(일) / 날짜별 요일 상이
 티웨이항공
 호이안 야간시티투어 (\$30상당) 포함

하나Pack 캐주얼 APPF10_8Y6
 세계 3대 화이트 비치
 보라카이 아잘리아리조트 4일 · 5일
 총 상품가격 **6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50 /선택경비 있음
 7월 29일(토)~9월 27일(수) / 날짜별 요일 상이
 팬퍼시픽 항공
 크리스탈코브 호핑투어(\$60 상당), 세일링보트(\$15 상당), 오일마사지(\$15 상당) 포함

광주일보 고객만을 위한 혜택
 셀카파티스튜디오 전시회
 무료입장권 1인당 2매 제공
 전시일자 : 17년 10월 15일
 장 소 : 광주 KIA챔피언스필드 1F 전시장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통해 예약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충장점
062) 228-1199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영이동료, 안전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장입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여행상품 내용)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nt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nt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시장에서 여행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지를 받습니다. ■관광사양서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2층(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휴일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편 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명원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nt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여행 유의 ●여행 자재 ●철수 권고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